

동아시아 질서재편 와중에서 비틀대는 미래의 한국

이명행의 전작장편소설 「황색새의 발톱」

뛰어난 글은 읽는 이를 긴장시킨다. 그 긴장은 그러나 억압적이고 파괴적이며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화해롭고 역동적이며, 그래서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수정의 메아리’와도 같은 행복한 긴장이다.

텍스트와 그것의 작가는 나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 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작가를 찾아가면서 나는 눈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는 인식회로를 거쳐 결국에는 가슴으로 밀려오는 뜨거운 감동의 물결을 느끼게 된다. 브레히트와 그의 이론가들은 비웃겠지만, 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것과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그 안에 빠져들어 파묻히며 느끼고 공감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나는 텍스트와 서늘한 정사를 벌인다고 말하고 싶다.

요즈음에 읽은 이명행씨의 전작장편소설 「황색 새의 발톱」은 위와 같은 체험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 준 뛰어난 소설이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통상(通商)업무에 관련된 한 미국인 관리가 테러를 당하는 돌발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추적해 가는 범죄소설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아래에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러나 서로 날카로운 예감을 이루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의 파워게임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또다시 초라하게 비틀거리는 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이 소설의 시간적 力場은 좁게는 구한 말까지, 그리고 넓게는 3세기말 가야와 왜의 실체문제라는 역사적 공간까지 거슬러올라가며, 그것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일본,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거의 전세계적 지도와 일치한다. 또한 문장 속에서 돌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통계수치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힘있는 단문체와 맞물리면서 이 소설을 매우 신빙성있는, 즉 소설이면서도 허구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하나의 보고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나는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아니 그것의 차례를 처음 펼치면서부터 하나의 단어에 집착했다. 그것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명제였다. 그것은 나에게 어쩌면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그래서 해결의 지극히 관념적인 독단을 재확인해 주는 쓸쓸한 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백년 전부터, 아니 수천년 전부터 계

속되어온 외세의 침략에 길들여진 반도의 토끼. 그 토끼는 영원히 망각하고 용서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분노할 줄 모르는 멍청이인가라는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내게 던져주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작가는 “그 정황은 한 세기전의 우리 민족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소산이 이 소설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진실한 대답이다. 나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특히 한국인 중에 두드러진 ‘민족주의자’가 없다는 점에 실망했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은 뒤 그것은 나에게 과장된 외침보다는 더욱 진실한, 그러나 감정이 지나치게 자제된 선고처럼 다가왔다.

나에게 이 소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소설이 너무 건조하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행간에는 강대국의 파워게임과 정보전쟁이 너무도 강하게 살아있어 정작 중요한 인간 개인의 의지와 행동은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건조함과 냉철함은 여성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독특한, 그리고 뛰어난 소설의 미덕이자 결점이다.

이러한 나의 불만은 아마도 그의 다음 작품에서 채워지리라 믿으며 이 소설을 덮는다.

김희섭

고양시 마두동 755 백마마을 삼성APT 107동 1501호

「미리 가본 통일조국 이야기」

아주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국민의 70%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10년간 두배의 세금을 낼 각오가 돼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후유증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또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인 고승우씨가 낸 장편소설 「미리 가본 통일조국 이야기—그날」은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낱말이 지적한다. 작가의 말을 빌리면, “지금과 같은 통일준비단계가 방치되고, 한반도 안팎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후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소설은 시작된다.

통일은 남한주도의 흡수통일로 달성되었다. 남북교류창구가 정부로 단일화되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기에 ‘국가안보부’는 통일 ‘공작’에 깊이 관여했다. 경제교류 중심의 대북접촉은 재벌의 입지강화를 가져와 통일 이후의 정치는 금권정치로 흐른다. 옛 남한은 통일을 비자주적인 외교승리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막을 수 없었다. 옛 남한의 사회문제였던 부동산투기와 성장포화 등의 문화는 여과없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북한제도의 일부 장점조차 모두 부정된다. 북에서 사유재산제의 부활은 그곳의 역사적 특성을 무시한 분단 이전의 재산권회복 주장을 불러일으켜 사회문제화된다. 상대적으로 기술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북한주민은 저임노동자가 되어 사회하층민이 됨으로써 남북이질감과 지역감정은 점점 커져만 간다.

단군신화에서 인간이 되지 못한 호랑이가 통일한반도를 삼일간 기행하는 형식으로 씌어진 이 소설은, 외세와 손잡고 국토의 일부를 떼어준 채 동일한 신라가 진점으로 삼국통일을 한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중시해야 함을 역설한다.

작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소설에서 제기되는 갖가지 문제들을 일축할 수 있지는 않다. 특히 우리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별다른 감정적 대립의 경험 없이 통일을 이룬 독일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작가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등장인물이 쏟아내는 수많은 주장과 논리는 읽기에 다소 어렵고 때론 지루하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산만한 감도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반문해보자.

이명신

서울시 구로구 시흥본동 881-58

「녹천에는 똥이 많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비록 그것이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진실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찾고자 하는 진실은 그 값어치가 무시되기도 하고 또 나약하여 힘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며 정당

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명문화된 일률적인 제도의 진실이 아니라 스스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진실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창동의 「鹿川에는 똥이 많다」는 그런 진실의 자리매김에 대한 작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준식이 오랫동안 나타난 이복동생 민우를 집으로 데려오는 녹천역에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준식은 급사로 출발하여 야간대학을 마치고 선생님이 되었고 이복편의 실패 끝에 작은 아파트에 입주한 평범한 소시민이며 그 앞에 예고없이 나타난 민우는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제적당한 사회운동가로 수배중인 몸이다. 그런 그를 몹시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맞이하는 준식의 아내는 남편이 수족관을 있어 버리고 사오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여자다.

상황은 그리 낯설지 않다. 어쩌면 전개될 내용을 미리 쉽게 짐작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똥이 많은 녹천에 비유되는 세상에 대한 준식의 몸부림은 우리들의 조급함을 용납하지 않고 보란 듯이 비껴간다. 이것이 이 소설의 묘미이며 힘이다. 어느 한쪽도 함부로 옹호하거나 치켜세우지 없이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과 삶, 그 내면의 모습을 뽐뽐하면 서도 꾸밈없이 눈물겹게 그려 나간다.

민우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준식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아내가 하루만에 변화하여 민우와 융화하는 데서부터 준식의 속앓이는 시작된다. 바랐던 그 일이 엉뚱하게도 준식을 끝없는 자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어린날의 기억까지 되새김질하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부피만 더해가던 준식은 아내의 전에 없는 잠자리의 몸달음이 동생 민우 때문일 거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동생을 고발하게 된다. 녹천역에서 함께 도망치다가 동생은 붙잡히고 자신은 똥무덤에 주저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자신만의 심정에 서러운 눈물을 흘린다.

먼 곳의 잔디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준식은 가까운 곳의 질기고 흙도 보이는 잔디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면역되고 “처음에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차츰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러운 오물이라기보다는 온갖 적나라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외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다. 그런 그에게

SEOUL BOOK MAP

서울 북맵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서울·북·맵」

이 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 도서관에 관한 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서점·도서관 완벽가이드

- | | |
|--|--|
| <p>1 서점가 지도 주요 서점들의 권역별, 거리별 상세지도</p> <p>2 대형서점 가이드 16개 대형서점의 기본테마 및 취급도서 비교 22개 구별 주요 신간서점 소개 및 지도 삽입 올가이드</p> <p>3 전문서점 가이드 4개 분야 28개 항목의 전문서점 160개 총망라</p> | <p>4 대형도서관 가이드 2개 대형도서관과 1개 대형 자료관의 이용데이터 서울지역 공공도서관·대학 도서관·청소년 독서시설 일람</p> <p>5 전문도서관 가이드 6개 분야 46개 항목의 전문도서관(자료센터)/ 200개 총망라</p> <p>조경환 편저 정가 4,500원</p> |
|--|--|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이윤배반적이게도 그토록 현실의 갈망이 강했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의 관심사는 그 동안 셋방을 전전하면서 다 망가지고 다리까지 툭질해야 했던 낡은 장농을 새걸로 들여놓는 것과, 수족관을 놓고 비디오, 오디오 세트를 사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그럴싸하게 꾸미는가 하는 문제뿐이었”던 그런 아내가 민우를 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며 준식과의 삶 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끝내 가까운 곳의 잔디는 아름다울 수 없는가. 침묵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모습은 왜 진실이라고 불려주지 않느냐며 준식은 항변한다.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냐? 넌 어째서 그 나이가 되도록 정의와 도덕을 위해서 싸우고 있냐? 너는 왜 나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저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똥이 많은 녹천에서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래서 더욱 느낌의 파장은 길다.

80년대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을까. 외침은 미화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은 이유없이 평가절하되어 왔던 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작가 이창동은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 그들의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그런 가운데 조심스럽게나마 진정 어려운 것은 대중화된 익명의 진실보다는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부닥치는 실명의 작은 진실이 아니겠느냐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김문하

고양시 성사동 719 신원당마을 103동 1306

「오디세이아 서울」

「오디세이아 서울」이란 제목에는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남긴 서사시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낯선 대륙을 전전하면서 항해를 계속했듯이, ‘졸부’에 의해 한국에 건너온 독일 제 볼펜 몽블랑(모델번호는 1644, 제품번호는 DB 258064)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어딘가 왜곡되어 있는 한국인의 의식을 낯선 이방인의 눈으로 파헤치고 있는 작품이다.

1부에서는 이 사회의 ‘거인’들, 하지만 병들었거나 불구인 거인들의 의식구조와 생활

상, 그리고 가치관의 부재로 혼란스러워진 서울의 일면을 그려내고 있다. 사채놀이에 가까운 장사로 한밀친 잡은 김왕홍씨의 가족과 그 구성원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자신에게는 무한정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한없이 가혹한—에는 정화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에서 마스크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옳건 그르건 마스크에 잡은 방향이 곧 그들의 상식과 의견이 되는 마스크에 거의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특성 속에서 ‘가슴없는 섬’을 발견할 수 있다.

과소비 문제만 나오면 자신만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애꿎은 ‘졸부’만 갖은 악담을 다 듣고, 책임범위가 좀 넓어져도 ‘어쨌든 가진 놈들’을 비난하는, 자신은 뒤돌아보는 법이 없고 타인은 머리 끝에서 발톱 밑까지 파헤치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펜인 몽블랑이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모델 뺨칠 정도로 꾸미고 다니는 여대생 딸의 분별없는 행동, 재수를 하고 있는 아들의 탈선, 고급한 문화·일류의 정신만을 추구하려는 한심한 영혼 한여사, 정신적으로 완전히 절망인 사람 김왕홍 가족의 난파로 몽블랑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2부에서는 몽블랑 볼펜이 환경미화원 강만석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로 출항을 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된다.

강만석의 아들 종태는 그 달동네의 가장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대학의, 일반적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학과에 진학함으로써 비상의 신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향이 민중해방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됨으로써 그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격이 되었고 그의 날개는 태양의 열기에 녹아내려 추락하게 되는 비극에 가족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몽블랑 볼펜은 강만석씨의 바다, 종태의 바다를 다 알지도 못하고 싸움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이제 내가 다시 떠들게 될 바다는 보다 아늑하고 보다 평온하기를, 내가 닿을 섬은 보다 아름답고 넉넉하며 거기 이루어진 인간의 마음들은 보다 밝고 깨어 있는 곳이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항해수단을 만나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조병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11 경동제약 기획조정실